

2009. 10. 19 제225호

세계도시동향

목 차

문화 · 디자인

1. 공공공간에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대규모 공모전 (미국 그랜드래피즈市)
2. Pavement to Park 프로그램 시행 (샌프란시스코)
3. 독일 통일의 날을 마리오네트로 재현 (베를린)
4. ‘가을 미술주간’ 행사로 5개의 국제 미술박람회를 동시 개최 (베를린)

산업 · 경제

5. 미래지향적 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 다양성 프로그램’ 발표 (뉴욕)
6. 새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 ‘이전 보너스’ 제도 시행 (베를린)

건강 · 복지

7. 자치구와 함께 건강격차 해소전략 추진 (런던)
8. ‘건강의 날’ 행사 개최 (미국 월밍턴市)
9. ‘장애인 수도’ 행사 개최 (런던)
10. 다문화 사회에 맞는 새 소비자정책 방향 발표 (베를린)
11. 30분 이내에 신종 인플루엔자를 검사하는 시스템 개발 (도쿄)
12. 자살방지 네트워크 결성 (도쿄)
13. 양로원 시설 · 서비스를 평가해 이용요금 차등화 (북경)

목 차

행정 · 재정

14. 시민의 시정(市政) 접근성을 높이려는 전략계획 발표 (뉴욕)
15. 새로운 '공공사업 위탁에 관한 규정안' 마련 (베를린)

방재 · 안전

16. '치한 피해 줄이기 캠페인' 전개 (도쿄)

도시환경

17. 상업건물주와 이용자 간 '그린 리스' 협약 추진 (런던)
18. '그린 열 증서'를 처음으로 태양열 설비에 발급 (도쿄)
19. 대규모 친환경 가로경관계획 추진 (미국 새크라멘토市)
20. 환경 보전을 위해 '월요일은 고기 먹지 말자' 캠페인 지원 (상파울루)
21. 자연친화적인 도시 재개발을 제안하는 보고서 발간 (런던)
22. 우량 산업폐기물처리업자 인정제도 시행 (도쿄)
23. 수변 산책지도 제작 (도쿄)

도시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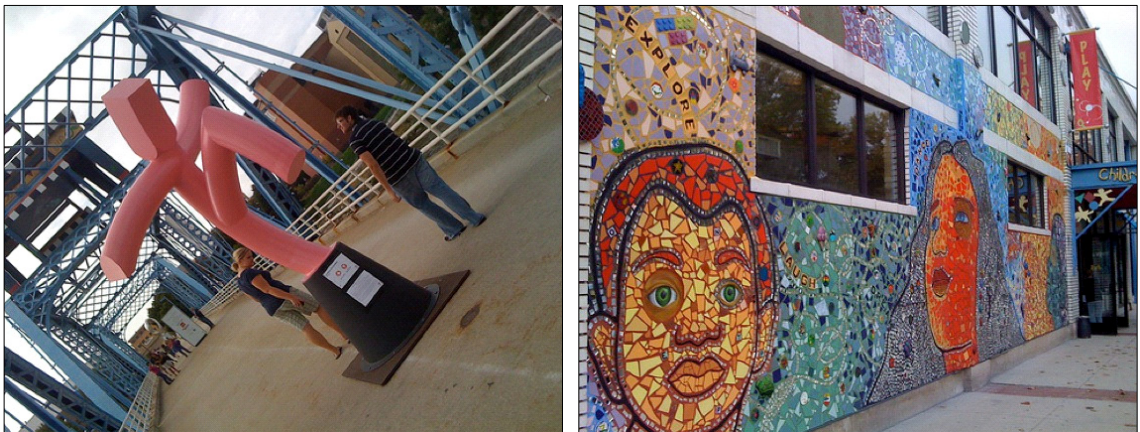
24. 인구 유입에 대비해 대규모 고속도로 · 철도 건설 추진 (미국 애리조나州)

도시계획 · 주택

25. 침체된 도심 주거지역 재생계획 마련 (런던)
26. 새로운 도시 어젠다 기본구상 (런던)

1. 공공공간에 미술작품을 전시하는 대규모 공모전 (미국 그랜드래피즈市)

- 미국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Grand Rapids)市에서 매년 열리는 미술공모전인 ‘Art Prize’의 2009년 행사에 12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함.
- 이 미술공모전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규모가 크며 작품을 제한된 공간이 아닌 도시 전역에 설치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임. 작품을 2주 동안 159곳에 설치하거나 전시함.
- 행사기간에 일반 시민의 투표로 10개 작품을 선별한 뒤 시민들이 다시 최종 수상작품을 선정함.
 - 이 공모전은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뿐 아니라 다양한 예술작품을 접하고 예술가와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음.
 - 총상금은 대상(大賞) 수상자에게 수여하는 25만 달러(약 2억 9000만 원)를 포함하여 50만 달러(약 5억 8000만 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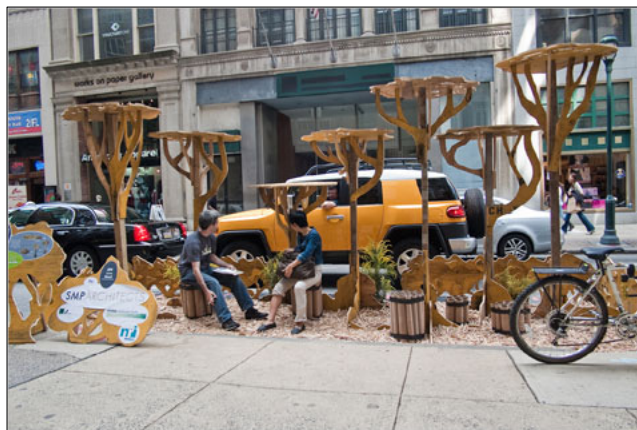


(www.planetizen.com/node/40886)

(www.good.is/post/grand-rapids-masters-the-art-of-urban-engagement/)

2. Pavement to Park 프로그램 시행 (샌프란시스코)

- 미국 샌프란시스코시는 2009년 9월 18일 Park(ing) Day 기념행사를 엮. 이는 인도(人道)나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도로에 벤치나 화분 등을 설치해 시민이 도로를 공원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행사임.
 - 이 프로그램은 뉴욕의 타임스퀘어 등에서 시행 중인 프로그램의 영향을 받아 시작함.
 - 대상지역과 디자인 선정에 약 2개월, 벤치나 화분 설치에 3일 정도 걸림. 단기간에 공간 디자인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를 파악할 수 있음.
 - 이곳에 설치한 화분, 테이블 등은 모두 기부받은 것임.
 - 시 도시계획과는 공공공간이나 보행자·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시설이 부족하거나 시민이 많이 모이는 카페 부근을 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임.



(www.planetizen.com/node/40804)

(<http://arieff.blogs.nytimes.com/2009/09/22/pavement-to-parks/>)

한 줄 뉴스

● 뉴욕

- 5개 區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전략 수립
- 브롱스 지역의 도심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도시계획안 마련

3. 독일 통일의 날을 마리오네트로 재현 (베를린)

- 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을 맞아 베를린市에서는 동서의 만남과 통합을 그린 인형극이 상연됨.
 - 인형극의 주인공은 프랑스의 유명 거리극단에서 온 대형 여자아이 마리오네트와 잠수복 차림의 초대형 남자 마리오네트(여자아이의 삼촌)임. 마리오네트는 인형의 마디마디를 실로 묶어 사람이 위에서 조정하는 인형극이나 그 인형을 말함.
 - 통일의 날 공식 기념식은 연방주인 잘란트의 주도(州都) 자르뷔르켄市에서 열리고, 수도인 베를린에서는 이 인형극 행사가 특별행사로 열림.
 - 인형극은 독일인의 감동을 자아내 성공적인 도시 이벤트로 평가받음.
 - 이외에도 통일의 날을 기념하는 콘서트가 6월 17일로(路)에서 사흘간 계속되었고 10월 3일에는 브란덴부르크문 앞 중앙무대에서 대형 콘서트도 열림.



(www.berlin.de/rubrik/hauptstadt/politik-aktuell/091002.html)

(www.rbb-online.de/nachrichten/politik/2009_10/Spektakel_.html)

4. ‘가을 미술주간’ 행사로 5개의 국제 미술박람회를 동시 개최 (베를린)

○ 2009년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베를린市에서는 ‘가을 미술주간’(Berliner Kunstherbst) 행사로 5개의 국제 미술박람회가 동시에 열림.

- 5개의 국제 미술박람회는 개관 역사가 짧은 화랑의 성과와 이들이 지원해 국제적으로 성공한 젊고 가능성 있는 작가의 작품을 소개함. 미술에 관심 있는 시민은 이 기간에 전 세계 미술시장의 동향과 전망을 한 번에 얻을 수 있음.
 - 5개 중 가장 큰 규모의 미술박람회이자 유럽의 주요 미술박람회의 하나인 ‘아트 포럼 베를린’(Art Forum Berlin)에는 전 세계 130개의 화랑이 참가하여 그들이 지원하는 작가의 작품을 전시함.
 - 두 번째로 큰 박람회인 ‘에이비시’(ABC: Art Berlin Contemporary)에서는 세계적인 화랑 64개가 베를린 예술원 건물에서 작가 80명의 공공미술 작품을 선보임.
 - 또 ‘프리뷰 베를린’(Preview Berlin)에서는 14개국에서 온 47개 화랑이 구(舊) 템펠호프 공항에서 대형 조각과 설치작품을 선보였고, ‘베를리너 리스트’(Berliner Liste)에서는 동유럽 출신 젊은 작가의 작품, ‘베를리너 쿤스트 살롱’(Berliner Kunstsalon)에서는 사진예술작품을 각각 선보임.
- 미술박람회장과 화랑, 유명 미술가의 아틀리에를 어린이가 방문해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가이드 프로그램도 마련해 미래 고객인 어린이가 창의적인 작업뿐 아니라 미술경영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박람회에 참가하지 않은 갤러리나 미술작품 소장가의 집도 방문해 자유롭게 작품을 관람하도록 함.
- 지난 몇 년간 베를린은 생활비와 운영·유지비는 적게 들면서 창작환경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평가받아 전 세계에서 예술가와 갤러리가 몰려들어 미술시장이 활기를 띠었음.
 - 현재는 금융위기의 여파로 갤러리와 미술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市는 가을 미술주간 행사를 계기로 미술에 대한 관심이 회복되기를 기대함.

(www.geisteswissenschaften.fu-berlin.de/we08/news/kukiz.html)

(www.rbb-online.de/themen/dossiers/ausstellungen/ausstellungen_in_berlin/art_forum_2009.html)

5. 미래지향적 산업 육성을 위한 ‘경제 다양성 프로그램’ 발표 (뉴욕)

- 뉴욕市는 2009년 9월 산업의 다양성을 꾀하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경제 다양성 프로그램’(NY Economic Diversification Program)을 발표함.
- 이 프로그램은 바이오산업, 패션, 금융서비스, 녹색, 제조, 미디어, NGO, 관광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정하고 각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비전을 제시하고 산업별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함.
 - 실행계획에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항목을 추가하고 약 22만 5000개의 소규모 창업자에게까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함.

(http://www.nyc.gov/html/econplan/downloads/pdf/diversification_final.pdf)

6. 새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 ‘이전 보너스’ 제도 시행 (베를린)

- 새 중소기업 지원프로그램인 ‘이전 보너스’ 제도가 2009년 10월 1일부터 베를린市에서 시범운영하기 시작함. 이 프로그램은 연구소, 학교 등 연구기관이 산출한 지식을 중소기업이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됨.
- 市는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소재 연구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신청한 중소기업에 최대 7000유로(약 1200만 원)를 지원함.
 - 지식 이전 촉진 목적은 기술지향적 기업이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지역에서 산출된 지식을 최대한 활용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음.
 - 주로 연구개발 분야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함. 해당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市 기술지원팀은 관심을 보이는 기업에게 유관 연구기관 정보와 연락처를 제공함.

- 市 경제부는 지식과 경제 분야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함.
- 현재 市 소재 중소기업이 연구기관의 뛰어난 연구성과를 십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연구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에서 생산까지의 과정을 지원하는 것임.

(<http://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10/01/140997/index.html>)

한 줄 뉴스

● 브라질

- 일반시민이 약 설명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과 큰 글씨로 작성하도록 의무화

● 브라질 상파울루州

- 내륙지방의 전통음식, 수공예품, 민속놀이 등을 소개하는 ‘전통문화 축제’ 개최

건강 · 복지

7. 자치구와 함께 건강격차 해소전략 추진 (런던)

○ 런던시는 자치구와 협력하여 어린이 비만퇴치 운동을 펼칠 계획임. 이를 위해 시는 건강격차 해소전략(The London Health Inequalities Strategy)을 마련해 유·청소년을 타겟으로 한 패스트푸드·과자 광고를 바로잡는 운동을 적극 벌여나갈 예정임.

- 전략의 주요 내용은 ① 빈곤문제를 해결해 저소득층 가정의 건강 촉진, ② 어린이 단체를 활용해 다양한 운동경기와 체력단련 활동 장려, ③ 공원과 녹지를 활용한 운동 촉진, ④ 區·보건복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보건활동 추진, ⑤ 자원봉사자와 개인이 즐길 수 있는 운동프로그램 개발 등임.

- 시는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늘어 저소득층 가정의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건강 증진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

· 실제로 부촌인 켄싱턴·첼시區(Kensington and Chelsea) 주민의 평균 수명은 84세인 데 비해 빈촌에 속하는 그리니치區는 75세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됨.

(www.london.gov.uk/mayor/priorities/health/health-strategy.jsp)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3782)

>>> 전문가 검토의견

- 런던시는 소외계층이 체육활동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장애요인을 없애고 체육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시민의 체육참여를 이끌어내는 생활체육정책을 펼쳐왔음. 건강격차 해소전략도 같은 맥락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임.

· 이는 식품 관리를 강화해 유·청소년의 비만을 퇴치하고, 운동프로그램을 보급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며,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환경을 개선하려는 전략임.

- 자치구와 협력하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007년 기준으로 서울시내 전체 초등·중·고등학생의 비만율은 13.7%로 학생 7명 가운데 1명이 비만임.
 - 서울시 교육청은 청소년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100곳을 선정해 비만 예방교실을 운영하고 비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건강한 식습관 훈련과 운동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서울시는 식생활환경 및 영양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학교 매점에서 올바른 식습관을 배우고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 과일 등 건강식품 판매를 지원하는 ‘건강매점사업’을 추진 중임.
- 서울시 자치구 보건소는 건강 증진, 건강한 환경 조성, 운동 교육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관할 지역의 야외공간을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 건강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시민의 건강 증진 측면을 고려한 도시계획적 접근이 필요함.

/노은이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eyn@sdi.re.kr)

8. ‘건강의 날’ 행사 개최 (미국 월밍턴市)

- 미국 델라웨어주 월밍턴市는 2009년 9월 19일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월밍턴 건강의 날’(Wilmington Wellness Day) 기념행사를 로드니 광장에서 엮.
- 이번 행사는 ‘행복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을 원하십니까?’란 주제로 市, 크리스티나 종합병원, WJBR 방송, 월밍턴 보건계획위원회가 공동 주최함.
 - 여러 보건당국, 정부기관, 의료산업계, 종교단체, 시민단체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자원봉사를 실시함. 특히 전염병·당뇨병 예방, 예방접종, 모자보건 등을 주제로 홍보물을 상영하고 교육을 실시함.
 - 관내 기업체도 단위 행사를 하나씩 맡아 시민에게 필요한 의학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한 뒤 기념품을 배부함. 지역방송인 WJBR은 행사를 생중계함.

- 市는 행사기간에 실시한 무료 건강검진이 시민의 건강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평가함. 시민도 대부분 질병에 대한 상식을 넓히고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만족감을 표시함.

(http://www.wilmingtonde.gov/newsroom/2009/0903_wellness_day.html)

9. '장애인 수도' 행사 개최 (런던)

- 런던市는 '장애인 수도'(Disability Capital) 행사를 2009년 9월 엮. 여기에서 런던을 장애인이 살기 편한 도시로 만들고, 장애인이 소외받지 않도록 경기 침체 상황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함.

- 행사기간에 열린 장애인 평등 정상회의 및 전시회에서 런던시장은 시민 6명 중 1명이 장애가 있다고 밝히고 이들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함.
 - 市는 경기침체로 경제적으로 더 취약해진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임.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3784)

10. 다문화 사회에 맞는 새 소비자정책 방향 발표 (베를린)

- 베를린市 건강·환경·소비자부는 다문화 사회에 맞는 새로운 소비자정책 방향을 발표함.

- 소비자정책은 식품안전, 교통, 소비, 교육, 건강보호 등 도시의 다양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 특히 여러 민족이 살고 다양한 식품과 제품, 서비스가 거래되는 다문화 사회에서 소비자정책은 새롭게 개선·보완될 필요가 있음.
- 새 정책방향은 소비자로서 이민자와 저소득층,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원하는 것임.

- 市는 인증마크의 투명성 확보, 소비자 보호기관이나 상담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다문화화, 이민자에게 친절한 행정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이번에 마련한 정책과제는 ① 市 소비자센터 확대, ② 식품 영양성분 표기, 요식업소의 위생상태 평가, 제품과 서비스의 이산화탄소 발생량 표기 등 구체적인 소비자 문제를 유관기관과 논의할 수 있는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③ 소비자 모니터링 제도 도입, ④ 소비자교육 강화, ⑤ 대중교통 이용자 권리 강화, ⑥ 건강 및 식품안전 분야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기관 설립 등임.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09/29/140683/index.html)

11. 30분 이내에 신종 인플루엔자를 검사하는 시스템 개발 (도쿄)

- 도쿄都 임상의학종합연구소는 최근 초고속 폴리메라제 연쇄 반응(PCR) 측정 시스템을 개발함. 이번 프로젝트는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연구의 일환으로 都가 비용을 지원해 진행해왔음.
- 기존 PCR 측정시스템은 면봉 등을 이용해 환자의 점막에서 검사 대상물을 채취한 다음 유전자를 증폭해 진단하는 것으로 사전 처리부터 검출까지 4~5시간이 걸렸음.
 - 새롭게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면 2시간 이상 걸리던 유전자 증폭을 15분으로 단축할 수 있어 사전 처리과정을 포함해도 30분 이내에 진단할 수 있음.
- 이 시스템은 계절성 인플루엔자와 신종 인플루엔자를 식별하고 타미플루 내성 유전자나 약·강독성 유전자까지도 검출하는 등 1회의 조작으로 환자의 여러 속성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어 치료방법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됨.
 - 2개월에 걸쳐 감도(感度) 검증을 실시하고 실제 바이러스를 이용한 최종 테스트를 거친 후 제조·판매 승인을 신청할 예정임.
- PCR(Polymerase Chain Reaction)는 특정 DNA의 주형과 DNA 증폭 효소를 이용해 대상 DNA 단편만을 선택적으로 증폭하는 방식임. 이 방법은 바이러스

에 있는 RNA를 DNA로 변환한 다음 유전자를 증폭하는 방식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검출함.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9/20j9u100.htm)

12. 자살방지 네트워크 결성 (도쿄)

○ 도쿄都 자살방지대책 시범지구로 지정된 아다치區는 자살방지대책 참가 기관을 확대하기 위해 2009년 10월 1일 변호사회, 기타센주 법률상담센터, Hello Work(일본의 고용지원센터) 등 구내 24개 기관과 제휴해 ‘마음과 생명의 상담 지원 네트워크’를 발족함.

- 일본 내각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아다치區 주민의 자살건수가 都 전체의 18%를 넘어 심각한 수준임.

- 지금까지는 구청 창구직원이 주민에게서 자살 징조를 느낄 경우 전문 기관과 상담하도록 연결해주는 ‘게이트 키퍼’ 양성에 주력해왔음.
- 아다치區는 2008년 11월부터 구민과 대면할 기회가 많은 국민건강보험과 등의 창구직원에게 게이트 키퍼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전 직원의 10%인 약 400명이 게이트 키퍼 역할을 맡고 있음.

- 마음과 생명의 상담 지원 네트워크에서는 자살할 장조가 보이는 주민 대응 매뉴얼을 작성하고 합동 연수를 실시함.

- 이외에 구내 사회복지협의회, 근로기준 감독기관, 경찰서, 소방서, 민간 병원 등은 네트워크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게이트 키퍼 양성사업에는 참여함.

(요미우리신문, 2009. 10. 1)

(www.yomiuri.co.jp/e-japan/tokyo23/news/20091002-OYT8T00097.htm)

(<http://news.suwon.ne.kr/main/section/view?idx=246396>)

13. 양로원 시설 · 서비스를 평가해 이용요금 차등화 (북경)

- 북경시는 2009년 9월 27일 전체 336개 양로원 시설을 평가해 5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이용요금을 차등화한다고 밝힘. 평가 결과 제1사회복지원, 아동복지원, 스징산 사회복지원 등 11개 양로원이 ‘북경시 서비스 표준화 시범 단위’ 인증을 획득함.
 - 서비스체계 등급별 평가기준으로 시설 면에서 침대 수(수용 인원), 면적, 의료시설 및 전문 간병인 수 등이 포함됨. 이외에 노인을 어떻게 목욕 시키는지,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 몸을 어떻게 뒤집는지 등도 평가함.
 - 시 전체 양로원 시설 336개 중 등급 판정을 받은 곳은 10곳에 불과함. 이 중 3성급과 4성급은 각각 4곳이며 5성급(가장 우수한 시설)은 없음.
 - 시는 평가결과에 기초해 등급별 적정 이용요금기준을 마련할 계획임. 이용요금은 현재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등급별로 시민이 요구하는 서비스 수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현재 시 소재 양로원 이용요금은 낮게는 월 400위안(약 6만 7000원), 중간 수준은 월 1500위안(약 25만 4000원), 고급 양로원은 월 3000위안(약 50만 8000원) 정도임.
 - 시는 정기적으로 등급 심사를 실시해 서비스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등급을 조정할 예정임.

(北京日报, 2009. 9. 27)

(<http://zhengwu.beijing.gov.cn/bmfu/bmts/t1087543.htm>)

한 줄 뉴스

● 북경

- 도시 및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 화교를 등용하기 위해 각종 우대 정책 마련
- 건국 60주년 기념행사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시내 전 주유소에 폭발 방지장치 설치

14. 시민의 시정(市政) 접근성을 높이려는 전략계획 발표 (뉴욕)

○ 뉴욕시는 시민이 시정(市政)에 더욱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Connected City Initiative’를 최근 발표함.

- 이 계획에 따라 市는 ① 시정에 활용되는 자료를 통합하여 접근이 쉽도록 하고, ② 도시정보를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메일링서비스를 실시하며, ③ 시민이 유·무선으로 요구·건의사항을 쉽게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④ 인터넷 접근성이 낮은 저소득층이 광케이블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할 방침임.

· 이에 따라 시민은 휴대전화 무선 인터넷 기능을 활용해 ‘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GPS를 이용해 시정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됨.

- 이번 계획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임.

· 시민이 기존 사회적 연결망을 활용해 시정에 더욱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온라인 건강정보의 활용도를 높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함.

· 이메일로 도시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장려하여 뉴욕을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듦.

· 시민이 공공장소에서 광역인터넷으로 도시정보를 더욱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함.

· 이용자친화적인 모바일 기술을 장려함.

· 온라인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을 촉진함.

(http://www.nyc.gov/portal/site/nycgov/menuitem.c0935b9a57bb4ef3daf2f1c701c789a0/index.jsp?pageID=mayor_press_release&catID=1194&doc_name=http%3A%2F%2Fwww.nyc.gov%2Fhtml%2Fom%2Fhtml%2F2009b%2Fpr432-09.html&cc=unused1978&rc=1194&ndi=1)

15. 새로운 ‘공공사업 위탁에 관한 규정안’ 마련 (베를린)

- 베를린시는 근로자에게 시간당 최저임금을 7유로 50센트(약 1만 3000원) 지급하고 임금협정을 준수하는 회사에만 공공사업을 위탁한다는 ‘공공사업 공고·위탁에 관한 규정안’을 만들.
- 이 규정안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회복지를 향상하고 근로자에게 너무 싼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을 돕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마련한 것임.
 - 이 규정안이 시행되면 독일의 모든 연방주에서 시도하고 있는 사회적 최저임금 보장과 노동착취 방지정책 분야에서 市가 선도적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새 규정안에는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야 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규정을 준수하면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09/22/139744/index.html)

방재 · 안전

16. ‘치한 피해 줄이기 캠페인’ 전개 (도쿄)

- 도쿄 경시청은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치한 피해 박멸 캠페인’을 펼쳐 도촬(盜撮), 성추행 등의 혐의로 31명을 검거했다고 발표함.
- 경시청은 소매치기 수사대와 철도경찰대 소속 경찰관 3041명을 치한 피해가 심한 지역과 전철 노선(사이쿄線, 야마노테線)에 배치함.
 - 검거한 31명 중 15명은 동일한 범죄 전과가 있음.
- 사이타마시는 치한 범죄가 점점 교묘해지고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형사부와 교통부 여성경관 130명으로 구성된 ‘치한 범죄 박멸 순찰대’를 2009년 9월 24일 발족함.

- 순찰대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전철에 사복으로 승차하기도 하고, 몇몇 주요 역에서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제복을 갖춰 입은 후 방법활동을 펼침.
- 증거 채취 키트를 들고 다니면서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와 범죄 용의자의 의복 조각, 땀 등을 채취하여 신속하게 감식하고 용의자를 체포함.
- 휴대용 증거 채취 키트는 일선 파출소에도 일제히 배포함.

(요미우리신문, 2009. 10. 1)

(www.yomiuri.co.jp/e-japan/tokyo23/news/20091001-OYT8T00109.htm)

(요미우리신문, 2009. 9. 25)

(www.yomiuri.co.jp/e-japan/saitama/news/20090924-OYT8T01222.htm?from=nwlb)

한 줄 뉴스

● 런던

- 소비자가 지하철노선도·교통공사 로고 등으로 기념품을 직접 디자인할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 구축
- 캐논 유럽지사를 유치해 새 일자리 창출
- 관광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
-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비즈니스 세미나 및 교육을 무료로 실시

17. 상업건물주와 이용자 간 ‘그린 리스’ 협약 추진 (런던)

○ 런던에 있는 ‘더 나은 건물 파트너십’(Better Building Partnership)은 상업부동산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그린 리스’(Green Lease) 추진방안을 마련함.

- 추진방안에 따르면 건물주와 건물 이용자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협약을 맺어 에너지와 물 소비량, 쓰레기 배출량 저감에 힘쓰도록 함.
- 더 나은 건물 파트너십은 런던의 주요 부동산 소유주로 구성되었으며 런던 개발청과 협의해 그린 리스 추진방안을 만듦.

(www.lda.gov.uk/server.php?show=ConWebDoc,3154)

>>> 전문가 검토의견

- 건물의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런던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린 리스’는 자원순환형 친환경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협약사업으로 볼 수 있음.
 - 특히 그린 리스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관계가 아니라 건물소유주와 이용자 상호 간 신뢰를 바탕으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려는 계약관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건물을 이용하려는 새로운 사례로 기대하는 바가 큼.
- 서울시는 이미 ‘친환경건축기준’(2007. 8. 16)을 마련하고 그린 빌딩 관리를 위한 인증 및 에너지합리화 사업을 추진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건물 부문에 대한 특화관리를 시행 중임.
 - 건물 신축·이용단계에서 서울시 기준과 지침으로 에너지 소비 최소화, 자원 순환 등 친환경 관리를 유도할 수 있음. 다만 건물소유주와 이용자 상호 간 친환경 계약관계인 ‘민간부문의 공생적 협력’은 건물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김운수 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장(woonkim@sdi.re.kr)

18. '그린 열 증서'를 처음으로 태양열 설비에 발급 (도쿄)

- (재)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그린에너지 인증센터는 도쿄都의 요청으로 설비 인증 후 '그린 열 증서'를 발행해주고 있음. 이 제도는 태양열, 바이오매스, 설빙(雪氷) 등 재생에너지로 생성한 열에 '환경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 분을 증서화해 시장에서 거래하도록 한 제도임.
 - 태양광 발전(發電)뿐 아니라 태양열도 환경가치를 평가받아 2009년 3월부터 태양열에너지 이용설비에 그린 열 증서를 발급하는 제도가 도쿄에서 시행됨.
 - 2009년 4월부터는 주택용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며 대신 태양열의 환경가치를 공공에 양도해야 함.
 -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09년 9월 15일 처음으로 '도쿄都 태양열 이용시스템 001 Farm'이란 주택용 태양열 설비를 인증센터에서 인증하고 2010년 초까지 열량을 계측하여 그린 열 증서를 발행하게 됨.
 - 都는 이번 인증을 계기로 태양열이 에너지 전환 측면에서 태양광 발전보다 효율적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인다는 점을 적극 홍보할 예정임.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9/20j9s200.htm)

>>> 전문가 검토 의견

- 재생에너지를 지원하는 방식은 국내·외적으로 크게 발전(發電) 차액 지원제(FIT: Feed in Tariff)와 의무할당 제도(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등 2가지 방법이 있음.
 - 발전차액 지원제가 가격을 정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방식인 데 반해 의무할당 제도는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제시함으로써 가격이 시장에서 조절되는 방식임. 그러나 둘 다 전력 생산량 중심의 지원방식임.
- 최근에는 재생에너지 열원에 대한 인증 및 지원방안이 논의되는 추세임. 재생에너지 전력은 중앙정부와 전력회사가 지원하는 데 반해 재생에너지 열원은 지역 차원에서 지원·보급 확산이 필요하다는 특성이 있음.

- 따라서 위의 재생에너지 열원 지원제도(그린 열 증서 발행제도)는 향후 의무 할당 제도 도입 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진상현 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 부연구위원(upperhm@sdi.re.kr)

19. 대규모 친환경 가로경관계획 추진 (미국 새크라멘토市)

- 미국 새크라멘토市가 시범사업으로 계획한 첫 번째 ‘Green Street’ 프로젝트를 2009년 9월 15일 완료함.
 - 이 프로젝트는 Erickson Street과 Swanston 경전철 정류장 사이에 있는 Dixieanne Avenue 구간을 대상으로 총 200만 달러(약 23억 원)를 들여 빗물 관리시설을 개선하고 주거지역과 경전철 정류장의 접근성을 높인, 미국 내에서 가장 긴 친환경 가로공사임.
 - 이곳은 주택단지와 공장이 있던 곳으로, 보행자를 위한 가로공간이 없었음. 새로 생긴 가로공간에는 100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고 잔디를 깔.
 - 빗물이 모이도록 연못 형태로 길거리 화단을 만들고 여기에 나무를 심은 점이 친환경적 요소로 꼽힘.
 - 친환경 가로공간이 생겨 지역 주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www.sacramento.press.com/headline/13839/Citys_first_green_street_now_open)
 (www.cityofsacramento.org/transportation/engineering/dixieanne-ave-green-street/index.html)

20. 환경 보전을 위해 ‘월요일은 고기 먹지 말자’ 캠페인 지원 (상파울루)

○ 상파울루市 환경국은 브라질 채식주의협회가 2009년 10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월요일은 고기를 먹지 말자’란 캠페인을 후원함.

- 市는 시민들이 육식만 고집하면 건강에 해로울 뿐더러 환경을 유지·보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일 중 하루는 채식을 하자는 운동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힘.

- 영양사들은 우유, 치즈, 버터, 요구르트 등 유제품과 곡물, 채소로 식단을 짜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함.

(www.estadao.com.br/estadaodehoje/20090928/not_imp441982,0.php)

한 줄 뉴스

● 중국 항저우市

- 중국 최초로 공장 옥상에 대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 상하이

- 음식점, 병원, 학교, PC방 등 공공장소에서 금연 추진

21. 자연친화적인 도시 재개발을 제안하는 보고서 발간 (런던)

- 영국정부 산하 자연보호집행기구인 Natural England는 런던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22개 자연풍경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함. Natural England는 그동안 런던 시민이 자연과 함께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市와 ‘자연 속의 런던’(Natural London) 사업을 추진해왔음.
 - 숲, 강 등 다양한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 도시에 어떤 자연환경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자연을 보전하면서 도시를 개발할 것을 제안·촉구하는 데 보고서의 발간목적이 있음.
 - 산책, 운동 등 여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녹지·수변과 공존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녹색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기후변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자연을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함.
 - 이밖에 도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연과의 공존도 모색한 모범사례를 소개함.

(news.bbc.co.uk/local/london/hi/people_and_places/nature/newsid_8268000/8268525.stm)

(www.naturalengland.org.uk/regions/london/ourwork/default.aspx)

22. 우량 산업폐기물처리업자 인정제도 시행 (도쿄)

- 도쿄都는 평가를 거쳐 우량 산업폐기물처리업자로 인정하는 ‘산업폐기물 전문가 제도’를 시행하기로 함. 이 제도는 산업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산업을 발전시키고 우량 처리업자를 육성하며 배출사업자에게 신뢰할 만한 처리업자의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실시함.
 - 산업폐기물 전문가는 都에 등록된 허가 처리업자(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중에서 선발하며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2종류로 구분함.
 - 산업폐기물 Expert는 1종 평가기준 적합업자에게, 산업폐기물 Professional은 2종 평가기준 적합업자에게 부여함.

- (재)도쿄都 환경정비공사가 평가해 인정하며 평가항목은 준법성, 안정성, 환경 공헌활동 등임.
 - 인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이 기간에 인정 로고를 사용할 수 있음.
-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10/20ja1200.htm)

23. 수변 산책지도 제작 (도쿄)

- 도쿄都는 도민이나 관광객이 수변을 산책하면서 더욱 친숙해질 수 있도록 수변 광역관광지도를 제작함.
 - 2006년 아사쿠사·료고쿠 편, 시바우라·덴노즈 편을 시작으로 2007년 후카가와·기바 주변 편, 하루미·도요스 편, 2008년 간다川 하류·니혼바시川 지역 편, 가츠시마 운하 주변 유역 편을 제작하여 관광정보센터 등에 배포함.
 - 2009년에는 스미다川 상류지역 편을 일본어·영어판으로 5000부씩 제작함. 구석지고 좁은 길을 따라 즐기는 산책코스과 공원, 전통공예 등 지역의 자연과 역사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정보를 소개함.
-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9/20j9u900.htm)

도 시 교 통

24. 인구 유입에 대비해 대규모 고속도로·철도 건설 추진 (미국 애리조나주)

- 미국 애리조나주 교통국은 2050년까지 수십만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측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White Tank와 Estrella Mountain 지구의 거대 사막지역에 640km에 이르는 고속도로와 약 514km의 철도 건설을 검토 중임.
 - 이 계획이 시행되면 고속도로 길이는 현재의 2배가 되고 서쪽 계곡 지역과의 교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남쪽의 산 때문에 교통이 불편했던 지역을

순환하는 통근용 철도도 건설됨.

- 일부 주민이나 전문가는 예상대로 인구가 늘 것인지 확신할 수 없으며, 인구가 유입된다고 해도 교통정체나 대기오염 문제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함.

- 州 교통국은 공사에 드는 비용을 600억 달러(약 70조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2009년 10월까지 상세 계획을 내놓을 예정임.

(www.planetizen.com/node/40900)

(www.azcentral.com/arizonarepublic/news/articles/2009/09/27/20090927futurefreeways.html
?&wired)

한 줄 뉴스

● 브라질 상파울루市

- 기업의 후원을 받아 중심 상가 주변에 친환경 공원 개장

● 베를린

- 市 업무계획 등을 시각장애인·문맹자·이민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MP3 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오디오 CD를 무료로 배포
- 가정에서의 정신건강 문제를 주제로 한 '정신건강 주간' 행사 후원

25. 침체된 도심 주거지역 재생계획 마련 (런던)

- 런던시와 주택·커뮤니티청은 엔필드(Enfield)의 노후화된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이 재생사업은 수십 년 동안 방치되었던 400호 규모의 주택단지를 개·보수해 서민주택 단지로 조성하려는 사업임.
 - 이를 위해 앞으로 몇 년 동안 재개발 협약에 따라 런던 교통국 소유 주택의 개발권은 노팅힐 주택 트러스트(Notting Hill Housing Trust)로 이전됨.
 - 이후 트러스트는 3560만 파운드(약 664억 원)를 투입해 주택을 개·보수하고 빈 대지에 새로운 서민주택을 조성함.
 - 시는 서민주택 공급을 기다리는 시민이 많은 상황에서 버려진 주택단지를 재개발해 서민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힘.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3818)

26. 새로운 도시 어젠다 기본구상 (런던)

- 런던개발청은 시를 21세기를 선도하는 역동적인 대도시로 발전시키고, 경쟁이 치열한 세계 시장에서 자본과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도시 어젠다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새로운 도시 어젠다’(New Urban Agenda) 기본구상을 제시함.
 - 기본구상에서는 새 도시 어젠다가 도시민을 수용하는 방법, 개발과 교통의 관계, 물리적 공간의 매력과 질, 기후변화의 도전과 대응을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함.
 - 런던개발청은 이들 주제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함께 다루어야 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해 실질적인 투자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밝힘.

(www.lda.gov.uk/server.php?show=ConWebDoc.3088)